



## 새로운 것, 자랑할 것, 광고할 것이 많은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여러모로 힘든 시기에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는 우리의 일상 생활은 물론 경제 활동에도 큰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생산과 소비가 줄고 기업 활동이 위축되면서 광고 산업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최근 한국광고총연합회가 발표한 조사에 의하면, 우리 광고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신제품 출시 연기(31%)', '광고 영업 활동 중단(38%)' 등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좋은 위기를 낭비하지 말라'는 영국의 윈스턴 처칠의 유명한 말이 떠오릅니다.

지금이야말로 국민과 기업이 합심하고 노력해서 포스트 코로나, 뉴 노멀 시대의 승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 및 비대면 산업 육성과 같은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은 시의적절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은 어느 선진국보다 뛰어난 시민 의식과 세계가 놀란 통신망을 기반으로 한 확진자 동선 추적, 온라인 교육 등이 일상이 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광고인이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의 저력을 발휘해, 새로운 기술과 트렌드를 소개하고 내수를 살려 코로나 이전, 아니 그 이상으로 한국 경제를 리드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기업의 마케팅 수단인 광고를 통해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여 일자리를 만들고 주력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경제 선순환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있었던 '제28회 국민이 선택한 좋은 광고상' 시상식은 미래를 향한 기업의 노력과 아이디어 그리고 상생의 공감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우리 기업과 광고인의 자신감을 표출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협회는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것, 자랑할 것, 놀라운 것이 더 많아져 세상 어느 곳보다 광고할 것이 많은 나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광고가 널리 힘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